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좋은 형제와 슬로시티에 관한 연구

김석은

\*혜전대학교 애완동물관리과  
e-mail: sekim21@naver.com

### A Study on the Good Brothers and Slow City in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Seok-Eun Kim

\*Pet Management Department, Hyejeon University

#### 요약

본 논문에서는 충남 예산군 대흥면 ‘의좋은 형제’의 숨결이 느껴지는 예당호, 저수지의 건설로 인해 수몰된 마을 주민들이 절망을 딛고 지난 2009년 9월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민간주도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기까지 주민들의 삶의 변화와 예당호의 출렁다리 설치로 인한 변화, 그리고 동물자원의 사육과 반려동물의 양육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슬로시티 예산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서론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전통문화와 자연을 잘 보호하면서 자유로운 옛 농경시대로 돌아가자는 ‘느림의 삶’을 추구하려는 국제운동으로, 1999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슬로시티(Slowcity)’는 ‘유유자적한 도시, 풍요로운 마을’이라는 뜻으로, 이탈리아인 치타슬로(cittaslow)의 영어식 표현이다[1].

충남 예산군 대흥면은 우리나라에서 6번째, 세계에서는 121번째 슬로시티(slowcity)이다. 1964년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9.9km<sup>2</sup> 규모의 예당저수지 건설로 마을의 1/3이 물속에 잠긴 수몰의 아픔을 겪은 주민들은 고향을 하나 둘 떠나가고 곳곳에 폐가는 늘어나 황량한 마을이 되어버린 이곳에 민간주도의 슬로시티가 인정되면서 주민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2]. 백제 부흥군의 거점이던 봉수산 임존성의 아래에 자리잡은 대흥면은 옛 초등학교(초등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린 ‘의좋은 형제’의 마을이기도 하다.

오늘날은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한 번 뿐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울증 등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불명예 1위를 하는 대한민국으로서 이의 해결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의 노인이 14.2%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가 되었고, 이미 농촌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가 되었다[3]. 대흥 슬로시티를 전수 조사하여 고령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2. 의좋은 형제 이야기 축제와 슬로시티

예산군 대흥면에 전해 내려온 전설로만 알았던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1978년 대흥면 상중리에서 ‘우애비’가 발견되면서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대흥면 동서리에 살았던 이성만·이순 형제의 실화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림 1] 예산 의좋은 형제상

한 마을에 따로 농사를 지으며 사는 형제가 있었다. 형제는 가을이 되자 추수를 하고 각자 눈에 벧가리를 쌓아 놓았다. 형이 생각하기를, 동생은 결혼해 새로 살림이 났기에 쌀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는 밤중에 몰래 논으로 나가 자기 벧가리를 덜어 동생 벧가리에 쌓아 놓았다. 그날 밤 동생이 생각하기에 형은 식솔도 많으니 쌀이 더 필요할 거라 여겨 밤중에 나가 자기 벧가리를 덜어 형의 벧가리에 쌓아 놓았다. 이튿날 눈에 나가 본 형제는 깜짝 놀랐다. 분명히 지난밤에 벧가리를 옮겨 놓았는데 전혀 벧가리가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튿날 밤에도 형제는 같은 행동을 했고, 셋째 날에 드디어 형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서로 밤중에 벧가리를 옮겼던 것이다[4].



[그림 2] 예당호 출렁다리

[그림 2]는 대흥의 ‘의좋은 형제’이야기가 숨어있는 예당저수지이다. 멀리 보이는 것은 최근에 설치된 ‘출렁다리’로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하며 걷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주말이면 발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북적인다.



[그림 3] 의좋은 형제 공원

예산군은 ‘의좋은 형제 축제’를 2003년부터 지역축제로 시작

되어 2008년 예산군 축제 통폐합, 그리고 다시 새롭게 축제 공모를 통해 ‘의좋은형제축제’로 2015년 10월에 의좋은 형제 공원(그림 3)과 대흥초등학교, 슬로시티 중심마을 일원에서 농촌체험 중심으로 사흘 동안 열린다[1].



[그림 4] 소정방 배 맨 나무(수령 1050년)

백제 부흥군을 공격하러 왔던 나당연합군의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배를 묶은 나무라고 전하는 ‘배 맨 나무’는 충남 최고령 느티나무이다[5]. 하필이면 소정방이 의좋은 형제의 고장인 상중리에 배를 정박하고 백제 부흥군을 공격하였다.

이성만·이순 형제는 의좋은 형제이기도 했지만 먼저 효자였고, 이성만은 지역의 호장이었다. 대흥 슬로시티는 민간주도로 시작하여 지자체에서 후원하는 성공적인 지역이다. 옛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걷는 3개 코스의 느린꼬부랑길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자연환경이 되었다.

### 3. 결론

1964년에 예당저수지로 인하여 수몰되었던 마을에는 숨겨진 옛 이야기가 있었고, 의좋은 형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배려하는 마음을 심어준다. 빨리만 가려던 우리들 마음을 슬로시티의 슬로건인 ‘느림의 삶’을 살자고 이야기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많은 것이 변화할 것이지만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만은 변하지 말아야 하겠다. 아이들 동화 속에서의 이야기가 아닌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온 국민이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이기를 소망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시대에 살고 있지만, 체감은 아직도 2만\$ 시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많은 외침 속에서도 끈끈히 이어온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국민으로서 자긍심은 전공과 하는 일에 무관하게 가져야 할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된다. 아직 이루지 못한 전공 관련 연구는 다음에 보충하여 신게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네이버 지식백과, “슬로시티”, 2020.
- [2] 전북일보, [슬로시티 전주, 새로운 길을 찾다 ③국내-충남 예산군 대흥면] “수몰 절장 던고 주민들 스스로 희망 일귀”, 2016.11.5.
- [3] 통계청, 「통계자료」, 2020.
- [4]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 편, 의좋은 형제”,  
<http://folkency.nfm.go.kr/munhak/index.jsp>
- [5] 연합뉴스, “배 맨 나무 전설 간직한 예산 느티나무”, 2014.4.8.